

Sanyo, 태양전지 실리콘 공장 건설

미국 오리건에 85억엔 투자 2009년 10월 가동 ... 생산능력 10만kW로

일본 Sanyo는 미국 오리건에 태양전지 패널의 원료인 실리콘 공장을 신설키로 했다.

Sanyo는 총 85억엔(약 940억원)을 투자해 10월 착공에 들어가며 2009년 10월경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공장 면적은 8만㎡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2010년에는 기존 공장을 포함해 태양전지 패널 환산 생산능력이 10만kW로 현재의 3배로 늘어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유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태양전지 패널용 실리콘의 공급난이 예상되고 있다.

Sanyo는 실리콘의 자체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태양전지 패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29>